

# 바깥 공기보다 더 오염되어 있는 실내 공기

바깥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더 오염되어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실내 공기에 의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Clean Air Society of Australia & New Zealand(CASANZ)에 의해 제출되었다. CASANZ 회장 Len Ferrari는 "사람들은 그들이 숨쉬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지난 2000년 호주 Victoria에서 5명의 사람들이 가스 난로의 일산화탄소로 인해 사망하였다. 정부는 이제 실내 공기의 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실외 공기 오염 문제는 현재 N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Council이 제정한 강제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이러한 기준보다 오염도가 높은 실내 공기를 정기적으로 호흡하고 있다고 CASANZ는 주장하였다. CASANZ 보고서에 의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담배 연기, 집먼지 진드기 및 곰팡이 등이라고 한다.

가정에서의 오염원으로는 가스 난로, 굴뚝이 없는 가스 난방장치, 새로 들여온 가구, 파티클보드가 깔린 마루(particleboard floors), 담배 연기 및 냉방 덕트 등이 있다. Ferrari에 의하면, 집에 존재하는 휘발성 유기물(volatile organics)의 양은 허용치의 10배가 넘으며, 자동차의 경우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양에 100배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도 실외 공기에 대한 기준을 실내 공기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Ferrari는 말하였다.

CASANZ는 실내 공기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환기 장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재 호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Energy Smart" 형 주택의 경우는 공기의 흐름을 막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내의 공기 오염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Energy Smart"형 주택을 후원하고 있는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uthority의 대변인은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기가 안 통하는 집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냉방이나 난방의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현명한 설계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말하였다.